

보도해명자료 (‘19. 2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현재 추진중인 SOFC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
없으며, 향후 정부는 연료전지 기초·원천기술 및
상용화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
(한국경제 2.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충북 보은과 진천에서 추진중인 SOFC 연료전지 사업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, '18년말 국내 연료전지는 포스코 에너지와 두산 등 국내 기업이 보급하여 주요 기술을 확보하였음
- 향후,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연료전지의 기초·원천 기술 및 상용화기술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
- 2월 26일 한국경제 <수소발전도 결국...‘외국산 놀이터’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수소경제 핵심축인 수소발전에 대해 기초기술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, 정부의 기술투자가 부족한 상황임
- 향후, 수소발전소 보급을 늘릴수록 기술력이 좋은 외국기업의 배만 불러줄 것이라는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충북 진천 및 보은에 설치 추진중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관련 발전사 등에 확인 결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님

- ② '18년말기준으로 국내에 설치된 발전용 연료전지는 총 307MW이며, 국내 시장점유율 1위는 포스코에너지(182MW)임 (2위도 두산, 125MW)
 - 금년도 신규 설치목표(137MW)에 대하여 업계 수요조사 결과 75% 이상을 국내기업이 설치할 계획으로 파악됨
- ③ 연료전지 기술별 효율(업계의견 종합)은 고체산화물연료전지(SOFC)는 전기만 생산하여 60%대이지만, 인산형연료전지(PAFC)나 용융탄산염 연료전지(MCFC)는 전기뿐만 아니라 열까지 생산하여 종합효율은 80~90% 수준임
- ④ 가장 최근에 개발된 고체산화물연료전지(SOFC)는 외국기업이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, 국내 다른 복수기업도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음
 - 정부는 연내 관계부처 공동으로 '수소 기술개발 로드맵'을 수립하여 SOFC 등 연료전지의 기술 국산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,
 -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PAFC, MCFC, SOFC 등 다양한 유형의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하여, 설치 환경에 맞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

※ 문의: 에너지신산업과 김봉석 서기관/박성수 사무관 (044-203-5398)